

# 영국 '건설전략 2016-2020'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발주자 역량을 제고하고, 건설 참여자간 협력을 유인하는 중장기 시행 전략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thsohn@cerik.re.kr

영국 정부는 중장기 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 인프라 시설 개선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6년 3월 1,630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영국 정부는 건설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발주자로서의 정부 역량 강화와 기술인력 양성 및 건설 기술력 향상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중장기 건설 전략을 발표했다. 본고에서는 2011년에 발표된 '건설전략 2011-2015'에 이은 2차 성격의 중장기 전략인 'UK Government Construction Strategy 2016-2020'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건설전략 2011-2015'의 성과

2011년 발표된 '건설전략 2011-2015'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영국 정부가 산업 참여자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발주자로서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계와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는 매년 건설 공사비와 관련된 정부 연례 보고서 발표를 통해 발주자의 인식을 제시하고 건설시장에서 사업 시행 역량과 발주자의 결과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설계와 시공 부문에서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과 같은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6개월마다 정부 건설사업(Government Construction Pipeline) 보고서를 발표했다. 더불어 시행자의 프로젝트 조기 참여 등 새로운 조달 방식 활용을 확대하고 산업 참여자들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대금지불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와 같은 방안들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5년 동안 약 30억 파운드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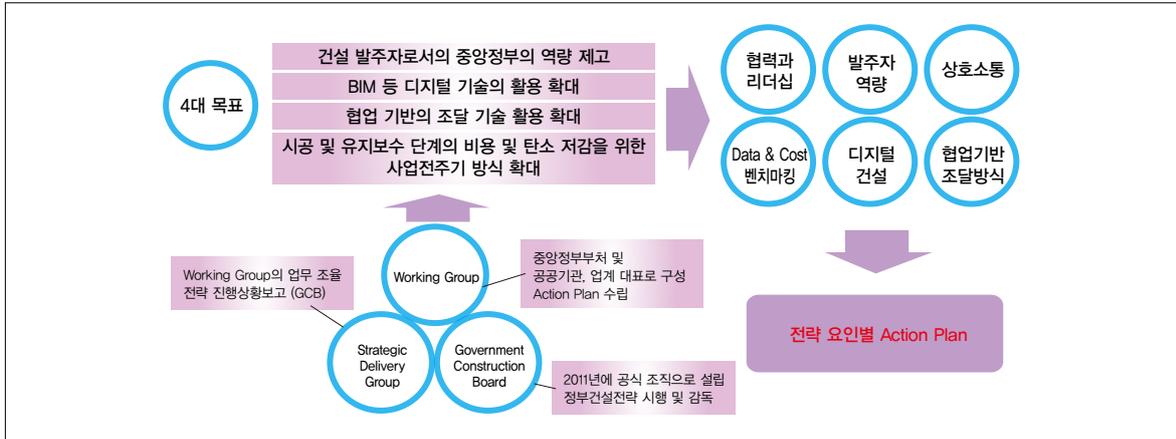
## '건설전략 2016-2020'의 주요 내용

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IPA)는 건설전략 2011-2015의 성공적인 성과를 근간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향후 5년의 영국 건설산업이 달성해야 할 목표와 전략적 우선 요인들을 담은 건설전략 2016-2020을 올해 3월에 발표하였다. 본 전략의 중심 가치는 선행 전략에서와 마찬가지로 건설산업 관계자 즉 영국 정부와 기업 등 참여자들 간의 협력에 있으며 영국 정부는 건설전략 2016-2020의 주요 목표를 4개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보듯이 첫 번째 목표는 발주자로서의 정부 역량 강화이다. 정부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요구하는 건설사업의 특징을 감안할 때 사업 발주 방식 개선, 사업 참여자와 협력 문화 조성, 발주자 리더십 등 정부가 보유해야 할 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영국 정부는 산업의 제도와 정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발주자로서의 모범적 역할을 전략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목표는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전략 2016-2020’의 주요 내용과 시행 주체



(BIM)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 확대다. 건설 산업에서 첨단 기술 활용 확대는 지난 1차 전략에서도 주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이고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공동 접근 방식을 활성화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BIM의 경우 1차 전략에서는 2016년까지 정부 조달사업 시행에 3D BIM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설정하고 추진하였는데 ‘건설전략 2016-2020’에서도 지속해야 할 핵심 목표로 제시되었다.

세 번째 목표는 사업의 시행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들의 사업 초기 참여, 전문 인력 2만명 양성, 공정한 대가 지불(fair payment) 문화 확산 등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 기반의 조달 기술 활용 확대다.

네 번째 목표는 공공사업의 시공에서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의 탄소 발생량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전 주기(whole-life) 사업수행 방식 활용의 극대화다.

영국 정부는 위와 같은 건설 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6개 주제별로 세부 시행 계획과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협력과 리더십(Collaboration and Leadership)으로, 공공공사 조달 혁신을 위한 지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 주요 기관간의 협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세부 시행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분기별 정부건설위원회

(Government Construction Board) 회의를 통한 건설전략 진행 상황 점검, 약 17억 파운드의 공사비 절감, 주요 발주자로서의 정부 이미지 제고 등이 주요 성과 지표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는 발주자 역량(Client Capability)이다. 중앙 정부의 건설 발주자로서의 역량 제고와 이에 필요한 주요 개선 영역 도출 및 건설 조달 효율성과 발주자 역량 간의 관계 정립 등이 주요 목표다. 세부 실행 계획에는 발주자 역량 워킹 그룹(Client Capability Working Group)을 통한 발주자 역량 정의의 재정립, 역량 개선 성과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정부 기관 전반에 대한 역량 제고 수준 검토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상호소통(Communication)이다. ‘건설전략 2016-2020’의 중요성을 산업 참여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전략 시행을 통해 얻어진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공유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IPA는 지방정부 회의에서 건설 분야를 맡아 산업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총리가 수여하는 최고의 공공 빌딩 상(Better Public Building Award)을 마련해 지속 추진 등을 주요 실행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는 데이터(Data) 분야다. 건설 전략의 시행 과정에 대한 평가와 공사비 절감 여부 보고

시 데이터 활용 확대, 산업계 전반에 데이터 공유 문화 및 베스트 프랙티스 발굴을 위한 데이터 활용 지속 등이 주요 목표로 제시되었다. 데이터·비용 벤치마킹 워킹 그룹(Data and Cost Benchmarking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관련 성과 측정 실시, 벤치마킹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침 마련, 부서별 성과 평가 지침 마련 등이 세부 시행 계획으로 포함된다. 또한 웹 기반의 데이터 리포팅 시스템 구축 여부, 정부 및 관련 부처의 성과 평가를 위한 공통 기준 구축 여부 등이 성과 측정 지표로 제시되었다.

다섯 번째는 BIM 활용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1차 건설 전략에서도 공공사업에서의 BIM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전략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건설전략 2016-2020'에서도 BIM 활용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활용의 성숙도를 높여 가는 것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다. 세부 시행 계획으로는 BIM 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한 성과 측정 지표 개발과 BIM 관련 베스트 프랙티스 개발 등이 포함된다.

여섯 번째 주제는 협업 기반의 조달 방식이다. 즉, 새로운 건설 조달 모델을 개발하고, 협업 기반의 조달을 위한 업계와 정부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달 모델을 이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주요 시행 계획으로 제시되었다.

### 참여자간의 협력이 전략 시행의 근간

상술한 바와 같이 '건설전략 2016-2020' 시행의 핵심은 건설산업 참여자간의 협력에 있다. 2011년에 공식 조직으로 설립된 영국의 정부건설위원회는 '건설전략 2016-2020'의 시행 감독과 전략적 방향 제시 등의 총괄 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신설 조직인 전략 수행 그룹(Strategic

Delivery Group)은 이번 건설 전략의 주요 주제별 시행 계획의 주체인 워킹 그룹(Working Group)들의 활동을 관리 및 조율하고, 그 결과를 정부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그리고 업계로 구성되는 워킹 그룹은 주요 주제별 세부 계획들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건설전략 2016-2020'의 목표와 전략 요인들을 선정하고 각각의 요인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성과 지표를 수립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 건설산업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성공적인 전략 시행의 근간이 되고 있다.

### 시사점

레이썸 보고서로 알려진 『Constructing the Team』과 이간의 『Rethinking Construction』 이후 영국 건설산업의 혁신 노력은 『Government Construction Strategy 2016-2020』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Government Construction Strategy 2016-2020』은 국가의 중장기 경제 발전 계획의 일환인 국가 사회 인프라 건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발주자 역량을 제고하고 더불어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협력을 유인하는 중장기 시행 전략을 담고 있다.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의 하나로서 건설산업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참여자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는 영국 건설산업 혁신운동의 근원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발표된 1차 중장기 건설 전략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략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발주자로서 정부가 보유해야 할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재의 영국 건설산업을 만든 요인으로 평가된다. **END**